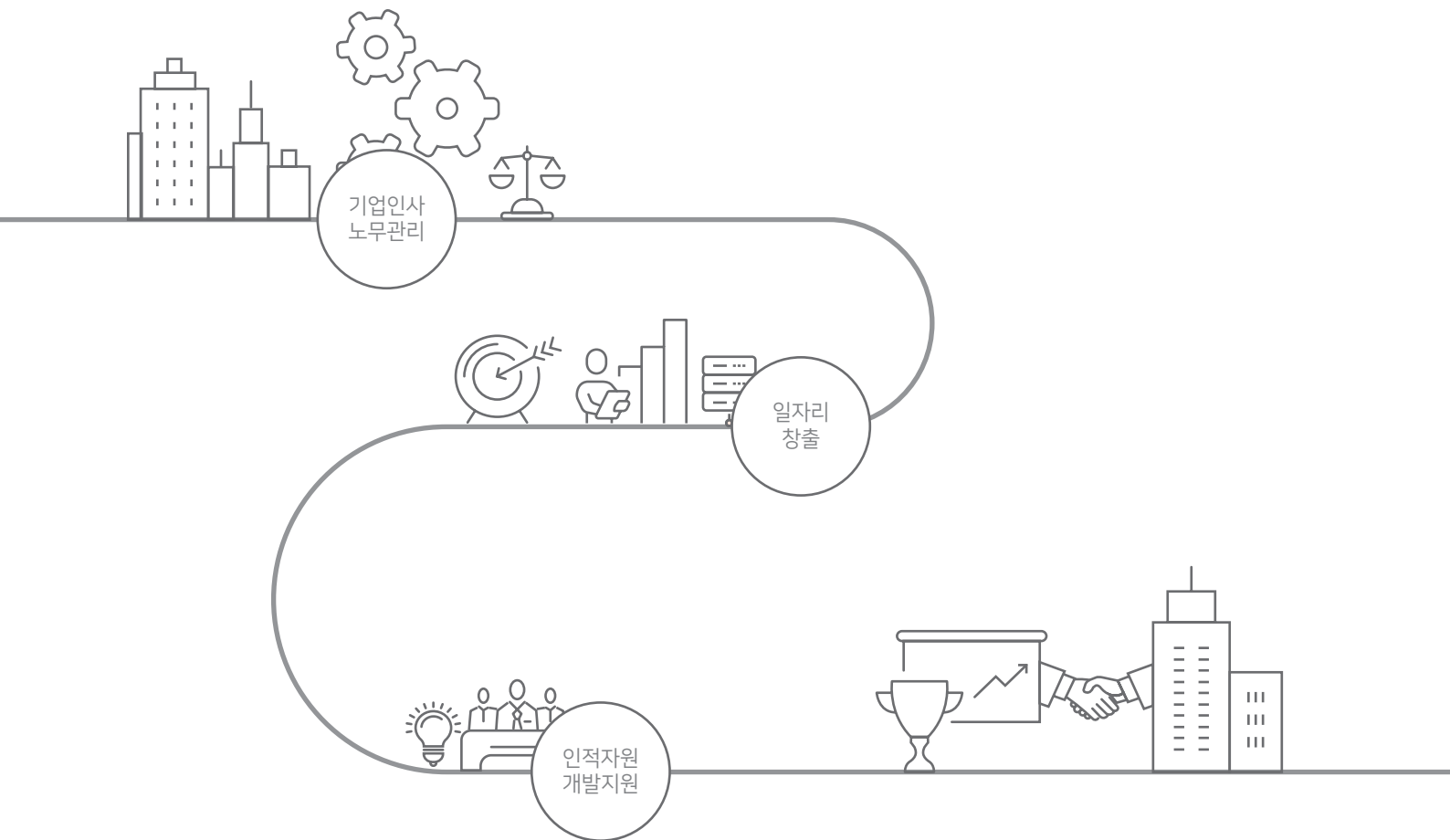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기탁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경제상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기탁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광주 공공 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과 배달료 지원 등에 쓰인다. 한정된 재원으로 거대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공공배달앱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과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이러한 혜택을 보다 많은 지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누적 평균 수익률 전 은행권 1위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5년 상반기 신입행원 10여명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분야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인재 분야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사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원서 접

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NCS, 일반상식, 인성검사), 1차·2차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우대 사항, 전형 절차 및 일정,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사람인 구직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열정과 패기, 도전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샵마스터'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한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한 차원 더 높은 패션 전문지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샵마스터 자격증 전문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특히 매장에 샵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안내물을 비치하여 고객들이 손쉽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부터 5주간에 걸쳐 협력사원들을 대상으로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샵

마스터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해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다.

샵마스터란 고객의 체형, 스타일, 기호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맞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패션 전문가를 말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는 유통업계에서 샵마스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샵마스터 양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이 만족스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첫 패션 그룹 초대전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한 차원 더 높은 패션 전문지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샵마스터 자격증 전문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특히 매장에 샵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안내물을 비치하여 고객들이 손쉽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부터 5주간에 걸쳐 협력사원들을 대상으로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샵마스터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해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다.

샵마스터란 고객의 체형, 스타일, 기호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맞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패션 전문가를 말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는 유통업계에서 샵마스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샵마스터 양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이 만족스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한국자동차튜닝협회 '튜닝 전문 플랫폼 입점' 협약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판매 서비스 및 채널에 진출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사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 완성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에 진심인 ESG 경영 기업으로 거듭난다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

금호타이어는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특히 2회차와 4회차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는데, 이는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금호타이어의 의지로 분석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한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김명선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ESG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 네오 QLED 5년 연속 탄소저감 인증



삼성전자는 2025년형 네오 QLE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더 프레임 등 80여종 모델이 독일 TÜV라인란드로부터 탄소 발자국·탄소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네오 QLED 8K와 네오 QLED 등 삼성 프리미엄 라인업은 5년 연속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했다. 보급형 라인업인 QLED까지 인증을 확대하며 지난해 60

개 대비 총 인증 모델 수가 증가했다.

TÜV 라인란드는 글로벌 실험 인증기관이다. TV제품의 제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부여한다.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고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기존 동급 모델 대비 탄소 발생량이 감소한 제품에는 탄소저감 인증까지 수여한다.

한전KDN

◆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전력IT 개론' 특강 확대 운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추진하여 온 '전력IT 개론' 특강이 2025년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기존 1학점 과정에서 전공선택 2학점 과목으로 개편되며, 최신 전력ICT 동향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로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중심의 학습을

통해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형 사장은 "전력ICT 분야는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등 디지털 전환의 급변과 함께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교육 열의에 부응한 지속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국가 보안관제 체계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K-ECP(KDN-Energy Cloud Platform)를 통해 국가 보안관제 체계를 지원하는 'K-ECP 보안 게이트웨이'를 개발하고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7월 정식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K-ECP는 'VM Instance(가상머신)', 'Container(가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SW Load Balancer(부하분산)' 등 총 28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에 적용된 '산업부 특화 보안관제' 서비스는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국가 보안관제 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가 보안관제 체계'는 보안 점검, 시스템 운용을 통해 불법 침해 시도 및 사고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정보보호 활동을 포함한다.

이는 공공분야의 중요한 정보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다중 관제 체계로, 한전KDN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전담 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체계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상형 사장은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공기업으로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운영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PS

◆ 한전KPS-대우건설 소형모듈원전 협약 체결



한전KPS(사장 김홍연)와 대우건설(사장 김보현)이 손을 맞잡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양사는 SMR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시공부터 유지정비(O&M)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SMR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전KPS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유지정비를 총괄해온 전문기관으로, 설비 진단·예방정비·운영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MR의 상용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정비 체계가 필수인 만큼, 한전KPS는 SMR 전용 정비 표준화 및 스마트 정비 기술 확보를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홍연 사장은 "SMR 시대에는 정비·운영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한전KPS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맞춤형 사회공헌사업 호응



한전KPS(사장 김홍연)의 업(業) 특성을 반영하고 수요 맞춤형으로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이 수혜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는 나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적재적소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온라인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행복나눔터'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일선 사회복지기관과 촘촘한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의 소통 활성화는 물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전KPS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력산업계 사회공헌 리더 △사람을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이웃 등 3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모두 28억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 각종 나눔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였다.

김홍연 사장은 "발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더욱 촘촘하고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으로 감동을 주는 나눔경영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 최대 1억원 지원...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공모전'



호반그룹은 혁신 기업 발굴을 위한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기술 공모전은 호반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KISED),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대표적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모집 분야는 ▲ 스마트시티(건설로봇, 건설혁신, 에너지신기술, 건설신자재 등) ▲ 숙박·레저·유통(AI 수요예측, 스마트골프장, 자원순환 등) ▲ 제조(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 신사업(에그테크, AI, 모빌리티, ESG 등)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내달 7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한 4개사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기술 테스트베드, 글로벌 진출, 사무공간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에너지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참여자 선발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 회)는 최근 광주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광주청년일경험드림' 17기 시작에 발맞춰 7명의 드림청년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장 경험과 직무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구인매칭을 통해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드림터로 참여해왔다. 이번 17기를 포함해 총 76명의 드림청년을 선발해 경영·마케팅·안전관리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했다.

정 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알 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78회 금요조찬포럼>

생각과 의지가 운명을 바꾼다.

(유영대 교수)

1678회 금요조찬포럼은 유영대 교수를 초청하여 「생각과 의지가 운명을 바꾼다」를 주제로 선(善) 순환 리더십과 변화관리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며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과 성장이 이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만듦 만들어지는 창조의 대상” 이라며 나의 시선과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선순환은 악순환의 반대말로 처음 사용해 세계적인 용어가 됐다” 고 소개하고, 개인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상호 긍정적 동기부여로 상승효과가 극대된 것으로, 악순환을 극복하고 선순환 현실로 전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는 “성공에 대한 핵심 요소는 탁월한 자질이 아닌 의지와 열정으로 도적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실천해야만 성공이 뒤따른다”며 광주경총 회원분들의 변화와 성공을 기원하여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1. 경제동향

◆ 경총,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 발표 (3.13)

- 경총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함.

〈 주요내용 〉

-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
- 동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러움.
-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3.10)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를 3.10(월) 발표
-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분석
- 2023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
- 제도별로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 <참고> 장기요양보험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추월 ▶장기요양보험: (‘21)7조 8,886억원→(‘22)9조 2,975억원→(‘23)10조

3,927억원 ▶ 산재보험: ('21)7조 5,644억원→('22)8조 2,963억원→('23)9조 1,054억원

-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 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를 차지했으며, 이 중 사용자는 81조 3,300억원을 부담해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7%를 차지
-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 8,840억원에서 2023년 177조 7,872억원으로 10년 만에 2.1배 증가
-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3조 8,474억원(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58조 558억원(48.5%) 증가 <참고> ('18)7.5% → ('19)9.0% → ('20)7.8% → ('21)8.0% → ('22)9.2%
-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이며,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집계해 발표하는 OECD 최신 통계(2022년 기준)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 ÷ 명목 GDP 우리나라의 경우 직역연금 포함 8대 사회보험료 및 정부출연금 합계액 반영
-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
- 우리나라 동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증가한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
-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고,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 크게 대비
-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 필요

◆ 경총,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 (3.6)

○ 경총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지목

- ①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 응답)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
- ② (규제환경 전망)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나타남.
 -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답변
- ③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응답)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그 외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
- ④ (경제위기 가능성)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
- ⑤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순으로 집계

◆ 통계청, 「2025년 2월 고용동향」 발표 (3.12)

- 2025년 2월 취업자는 2,81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명(0.5%) 증가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 2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명), 정보

- 통신업(6만 5천명) 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업(16만 7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만 4천명), 제조업(7만 4천명) 등 취업자는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34만 2천명), 30대(11만 6천명)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20대(22만8천명), 40대(7만 8천명), 50대(8천명) 취업자는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8.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2.7%) 증가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7.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전체 체감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7.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5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0%) 증가했고, 이중 취업준비자는 6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2.2%) 증가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2만 3천명 증가한 269만 7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감소한 39만명 기록

◆ 한국은행,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향」 발표 (3.7)

- 2025년 1월 경상수지는 2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0.5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1.1억달러 축소
 - ※ 경상수지는 '23년 5월(20.9억달러 흑자)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112.9('24.9)→ 94.0(10)→ 100.5(11)→ 123.7(12)→ 29.4('25.1)
- 상품수지는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43.6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
 - ※ 상품수지는 '23년 4월(6.6억달러 흑자) 이후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 추이(억달러): 106.7('24.9)→ 80.7(10)→ 98.8(11)→ 104.3(12)→ 25.0('25.1)
- 서비스수지는 20.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8.6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2.8억달러 적자) 이후 33개월 연속 적자 기록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 21.0('24.9)→ 19.3(10)→ 19.5(11)→ 21.1(12)→ 20.6('25.1)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6.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6.9억달러 흑자)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4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고용노동부,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한국고용정보원)」 발표 (3.11)

-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2025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

* (조사대상) 구직급여 수급(모수 약 1만명)·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수료(모수 약 9만명) 후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청년(15~34세) 3,189명(한국고용정보원, '24.12~'25.1월)

※ 실태조사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5.3.11) 참조

〈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쉬는 기간 및 근로소득 경험) 장기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 근로소득 경험이 있는 청년은 87.7%
- (마지막 일자리 및 근속기간) 마지막 일자리는 제조업(14.0%)·숙박음식업(12.1%)의 소기업·소상공인(42.2%) 비중이 높고, 주로 수도권에 소재(53.3%).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으며, 평균 17.8개월로 나타남.
- (쉬었음 택한 사유)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으나,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도 다수
- (쉬는 기간 동안 주된 활동) 교육·자기계발(55.5%)과 휴식·재충전(5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경우도 다수(20.3%)
- (심리상태) 절반 이상(58.2%)은 쉬는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으로 평가
-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는 답변은 77.2%에 달하며, 경제적 어려움(71.1%) 외에 자신감 하락(62.5%), 미래대비 미흡(53.9%)도 상당
- ‘쉬었음’ 청년의 68.4%는 향후 1년 내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노력을 투자할 계획(60.9%)
- (취업에 필요한 도움)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훈련·교육(59.3%),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높게 평가

2. 노사동향

◆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

-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3. 12, 「경제관계장관회의」)
- 고용부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경우 ①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현행제도(1회당 3개월) 또는 특례 중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② 1회당 6개월 인가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차등화할 계획
- 한편, 고용부는 1회당 6개월 특례 활용시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
 - ※ 경총은 3. 13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기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직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처리 난항
- 여야정은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회(2. 20, 3. 6, 3.10)」를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 여당은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①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② 반도체산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는 의제 선정을 둘러싼 논의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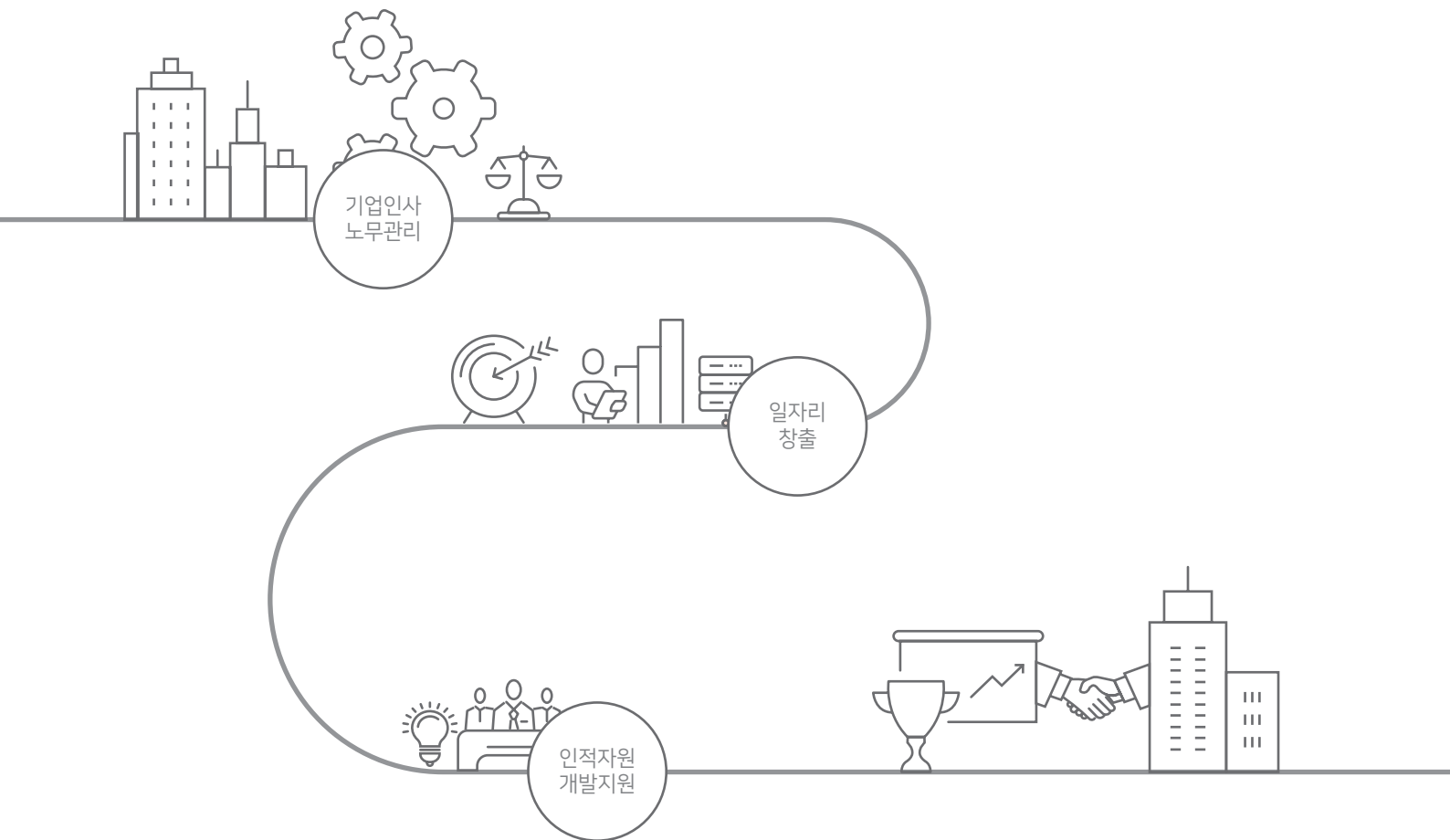
-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5단체는 논의의제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했고, 국회의장실은 운영구조 제안 및 논의 의제 합의 시도 계획
 - ※ 노사 5단체 :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회는 '24. 11. 22부터 3. 7까지 총 7차례 진행
- 국회의장실은 운영구조와 관련해 2. 28 제6차 실무협회에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의제 조율을 위한 ‘운영협의회’와 노·사·국회의장이 각각 제안한 의제 논의를 위한 ‘의제별협의체’ 운영을 제안

- 국회의장실은 제7차(3. 7) 실무협의를부터 국회 내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논의 의제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이견 조율에 난항
 - ※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제7차 실무협의를는 3. 7에 진행했으며, 제8차 실무협의를는 3.21 진행 예정
- 경총은 4차산업 혁명,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한 인재양성 및 인적기반 구축을 의제로 제시한데 이어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및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 등도 의제로 제시
- 노동계는 특고□플랫폼종사자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초기업교섭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의제로 제시

◆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법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

- 더불어민주당은 3. 12「민생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대 민생의제’ 및 ‘60개 정책과제’ 발표
 -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① 중소기업인 자영업위원회, ② 노동사회위원회, ③ 금융·주거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의원,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
- 고용노동분야에서는 ①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도입, ② 법정 정년연장, ③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이 과제로 제시
 - ※ 3. 13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도 결의문을 통해서 정년연장, 주4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반면, 정부·여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노동법제 개편 논의 선행’을 기조로 설정한 가운데 주요 사안별로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커 입법 논의 난항 전망
-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철회 촉구
 -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 17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5당은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추가 발의 예고(3. 6, 기자회견)
- 한편, 김위상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은 계속고용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제 개편을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3. 12)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 안내

■ 금요조찬포럼 회원사 무료 참가

- 경제·경영 이슈 및 인문학 등 전문가 초빙 강연
- 회원사 CEO(임원), 기관단체장, 오피니언 리더 대상

■ 각종 노동경제 교육 및 연수 무료 참가

- 중대재해 및 노동관계법 현안 등

■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및 청·장년층 인재 알선

- 광주뿌리산업구인난 개선, 청년성장직장적응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장년내일센터

■ 기업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참석

-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사노무관리 자료제공 (온·오프라인)

- 최신 노동경제 정보 제공, 도서 발간 배포

■ 기업 입장 대변 및 경영계 창구 역할 활용

- 노동경제 관련 법·제도 국회 의정 활동 및 대정부 건의

■ 자문위원 무료상담 활용

-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법무, 무역 분야

■ 노동사건 해결 지원 및 노조파업대책 지원

-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 지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협력·고용창출 유공자 포상 및 추천

■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지원

■ 기타 회원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활동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 광주 지역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기업 :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 근속지원금 : 1인 최대 240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 ◦ 주거비(월세)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 건강검진비 : 1인 최대 30만원 (연 1회) 	716-3504
2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소재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관리자 (직책,근속기간 제한없음) - 신입직원(최근 3년 내외 채용, 청년층: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신입직원 일체 교육지원 - 관리자: 리더십, 소통, 갈등관리 등 - 신입직원: 직장예절, 팀협업, 문서작성 등 * 회원사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자사 교육 가능 	654-3427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애로청년 채용 기업 및 ◦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근로자 : 18, 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716-3424
4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

기업서비스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는 광주고용복지+센터와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하여 중장년전담창구를 통해 만 40세이상 중장년 대상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서비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서비스 01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고용24' 구인 인증 및 채용대행 서비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구인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 구인정보 등록 → 승인 기관 선택시 '중장년내일센터 → 광주 → 광주경영자총협회' 선택 (우측참고)
- 승인 후 적합자 알선 등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인증서비스 기관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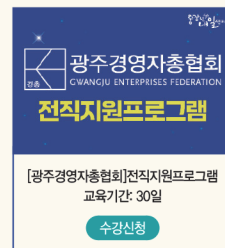
기관구분선택	시/도 선택	인증서비스 기관선택
<p>고용센터</p> <p>고용센터 지자체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p>	<p>관할지역</p> <p>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p>	<p>인증서비스 기관</p> <p>(유관기관-중장년내일센터) (사)광주경영자총협회_광주 (유관기관-중장년내일센터) (사)광주경영자총협회_광주 광산</p>
<p>닫기</p> <p>적용</p>		

기업서비스 02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재직 및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퇴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원

- 기업단위 대면프로그램 : 1일 4시간
- 경력자산정리, 중장년 취업시장 뽐내기, 다양하게 일하기, 경력대안 탐색하기 등
- 온라인(e-러닝) 교육 : www.elifeplan.or.kr(회원 가입) → 수강신청 → 전직지원(온라인) →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직지원프로그램 수강신청 → 1~13 모듈 학습하기, 학습 후 설문 + 시험 완료하면 수료



기업서비스 03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100세시대를 대비한 일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년나침반 프로그램

- 기업단위 대면프로그램 : 1일 6시간(강의실, 시간, 모듈 구성은 기업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
- 생애경력설계 이해하기,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재무관리, 건강관리 등
- 다과, 점심, 기념품, 수료증 제공

